【 논 문 】

지역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22. 1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동철** · 김대건***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가치를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9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C 기초자치단체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의 영향과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및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상향식 의사결정과 사업방식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필요성 및 주민자치회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_*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53294)
**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강사(제1저자)
***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교신저자)

지역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22. 12

A Study on the Governance Capacity and Effectiveness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Kim, Dong Chul* · Kim, Dae Geon**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governance capabilities on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awareness, and social capital. It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ance capabilitie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and social capital. To this end,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were deriv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sidents' self-governing and governance capabil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awareness, and social capital.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utilized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eight local residents of the C basic local government, which was converted to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in 2019. Through this analysis, the impact of the governance capabilitie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ere derived.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research include active promotion and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the need to operate the self-governing council through bottom-up decision making and business methods,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programs.

*Keywords_* residents autonomy council, capacity of governance, civic participation, community consciousness, social capital

* Lecture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First Author)
**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이다. 그 동안 단체자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실질적 지방자치가 되기 위한 제도적인 조건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1999년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주민들의 상호교류와 의견을 주고받는 공론의 장(場)으로서의 기능과 공간이 되지 못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근린·지역의 문제[1]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2]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자치분권을 확대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실행 등 주민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이 제도의 초점은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찾고 마을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0)에 있다. 즉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지역을 기초로 근린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공간(Davies & Herbert, 1993)이며, 시민성의 발현과 공동체 공간으로서 공론의 장(김대건, 2009)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심익섭, 2012; 안철현, 2017)인 동시에 행동을 위한 기제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실시 지역의 확대 및 평가척도 개발 등이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실시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기초로 주민자치회의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문제 의식, 즉 주민자치회의 효과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한 후,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에서 과연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이하 논의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마을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마을'로 통일한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제20~제22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모델(안)을 제시되었다. 2013년 5월 28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기능·구성 등(제27~제29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부터 1차 시범실시로 31개 읍·면·동에서 시작했으며, 2015년 10월에 18개소가 추가되어 2016년 12월까지 총 49개소가 운영되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한다.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9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C 기초자치단체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공동체 의식, 주민 참여, 사회적 자본 축적 등과 관련된 시사점 및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1.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논의

1)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필두·류영아, 2014; 안철현, 2017).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란 이양받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하혜영, 2020).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서 주민자치회 실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실시는 주민자치의 토대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소통 체계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0)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0). 주민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자치회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을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민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촉진과 주민중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근린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근린이란 인접한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의사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Davies & Herbert, 1993).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방식을 결정·집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린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적이며, 주민참여는 주민들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참여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근린자치의 실

현으로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킨다. 공론의 장이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여론과 공론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시민성의 발현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적 공간을 의미한다(김대건, 2009). 즉, 공론의 장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간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킨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론의 장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가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적 연계가 가능하다.

셋째,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마을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주선미, 2003).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심익섭, 2012; 안철현, 2017).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위한 자율적인 자치조직의 운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열린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만들기'[3]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김홍주·강인호, 2020)고 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지역 주민의 직접적 참여 조직체로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핵심으로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주도하거나 계층제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김석준 외, 2002; 이정석, 2015).

한발짝 더 나아가면 주민자치회는 근린 거버넌스 또는 마을 거버넌스와도 연결된다. 근린 거버넌스는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가까운 이웃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의사결정에 참여(곽현근, 2012; 이정석, 2015)하는 기제를 말한다. 이러한 근린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자로서 인식할 때 의의가 있다. 한편 마을 거버넌스는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 단위는 마을이라고 보고,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의 주

3) '마을만들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의제로서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공동체성 회복 또는 공동체 재형성 및 재구축,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화 된 상태를 의미한다(Stoker, 1998; 김상민, 2016).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마을 주민,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마을 거버넌스의 논의와 연결된다.

이렇듯 주민자치회 자체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공유 및 마을과 지역 문제에 대한 반응성 등의 측면(Pill, 2007; 김상민, 2016)에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내포하고 있다. 거버넌스로서의 주민자치회[4]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거버넌스 역량을 가졌을 때,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동체 의식의 형성,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

거버넌스로서 주민자치회의 역량[5]은 조직, 네트워크 및 규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상섭·백종만, 2016). 첫째, 조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자치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마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여자 또는 행위자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복합적 상호작용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Stoker, 1998; 한승준, 2008). 조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체 조직, 분과위원회 및 임원 등에 대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 수준 등이 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핵심 이해관계 주체들과의 소통 역량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란 어떤 목표·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 조직에 소속되거나 주거하는 지역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연계를 만들어내는 활동 과정을 의미하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서 네트워크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석주박지영, 2012). 위에서 언급한 마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네트워크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식적 권한에 한정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자치회가 속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소통 역량 등이 될 수 있다.

셋째, 규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규약을 의미한다. 규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자치회 규약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은 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유의정 외, 2010). 또한 규범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관념에 대한 것으로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실천되는 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기준(evaluating standards)(Fleras, 2009; Tsuneyoshi, Okano & Boocock, 2011; 우양호, 2013)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하 논의에서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라고 칭한다.
5) 이하 논의에서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라고 칭한다.

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주민자치회가 충분한 거버넌스 역량을 가졌을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동체 의식의 형성,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 및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집합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김대건·김동철, 2014)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체 형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주민 간 신뢰 형성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곽현근,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참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소진광, 2004; 임종임·이신숙, 2015). 또한 지역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주민참여 조직은 주민들 간의 신뢰, 호혜성,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이끌어 내며(Putnam, 1993; 이곤수·송건섭, 2007), 참여조직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협력과 호혜성의 규범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참여자 간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Putnam(1995)은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를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였다.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구성원들의 신뢰 및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박영민, 2014).

둘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관련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 또는 행위(최예나, 2016; 하상근, 2020)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제도화된 주민참여 조직인 주민자치회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행위와 제도로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활동을 위한 실행조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 주민참여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변화 촉진 요인으로서 의의가 있다(김정희, 2014; 가상준, 2018). 특히 주민자치회는 다수의 주민이 연대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김혜정, 2016). 또한 주민참여는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었을 때 가능하며, 주민자치회는 마을 문제 해결에 대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수동적 주민참여를 능동적 주민참여로 변화시킨다(강재규, 2016).

셋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안에

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최문형·정문기, 2015)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따라 촉진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활발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다시 지역 주민이 스스로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서재호, 2013). 무엇보다 폭넓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김혜정, 2016). 특히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관련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공동체 의식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1, 가설2 및 가설3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및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

주민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지역공동체 내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동철·박광표·김대건, 2020),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곽현근, 2004; 이인숙, 2015).

첫째, 주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를 유발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의 사회적 참여 또는 연대를 통해서 창출되며,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공동체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해결을 위한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Rubin & Rubin, 2001; 김혜연, 2011). 주민참여는 참여자들이 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거버넌스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병찬·주덕, 2016). 주민참여는 주민참여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만족, 다른 참여 주체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Rich et al., 1995). 주민자치회와 같은 조직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는 참여자들의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며, 이는 다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관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치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위한 협력에 기여하며, 이는 다시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의 강화로 연결된다(최예나, 2016). 주민자치회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와 같이 조직화된 단체에 대한 주민참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연결되며, 이는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김대건·김동철, 2014). 즉,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소속감, 충족감 등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또한 주민참여는 단절되고 서로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주만들 간 강한 유대관계와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집단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규모면에서 소규모이므로 단절되고 서로의 요구에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주민들 간 강한 유대관계와 그것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용이하다(가상준, 2018).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4와 가설5는 다음과 같다.

가설4 주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공동체 의식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심홍진 외, 2014). 공동체 의식은 지역공동체 문제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대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곽현근, 2016). 공동체 구성원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이끌어 낸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연결망으로 가정했을 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연대의 형성이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이는 구성원들 간의 기대되는 의무이행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촉진한다(최경애, 2016).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6은 다음과 같다.

가설6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 역할

주민자치회는 제도화된 지역공동체 조직의 하나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김태룡, 2006; 곽현근, 2016).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명확한 규범을 바탕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참여주체들 간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하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제도 속에서 발현되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강화는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조직(Bourdieu, 1986; Coleman, 1988; Baker, 1990; Burt, 1992; 김태룡, 2006)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주민참여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연대와 호혜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마을 거버넌스 또는 근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민자치회는 마을 현안과 문제 해결에 대해 개방된 참여,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을 통해 마을 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뢰와 규범에 기반한 협력을 핵심으로 할 때 긍정적 영향력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강화된다(Putnam, 2000; 서문기·오주현, 201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주민참여는 지역공동체에 애정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의지로서 발현되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Conway & Hachen, 2005). 또한 공동체 의식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교류와 유대감을 반영하는 지역공동체의 응집력으로서 작용(Perkins et al., 1992; 이인숙, 2015)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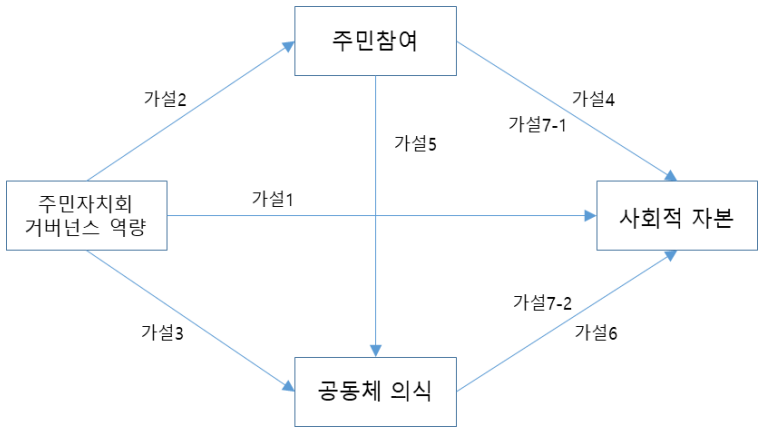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7-1과 가설7-2는 다음과 같다.

가설7-1 주민참여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2 공동체 의식은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에 따른 변수설정을 보면, 독립변수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을, 종속변수는 사회적 자본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월평균 소득을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2. 조사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 수준, 소통 역량, 주민자치회 규약의 수준 등에 대한 기대 수준'으로 정의한다(이정석, 2015; 정지훈, 20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회의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주민자치회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민자치회 규약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측정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이다.

둘째, 주민참여는 '주민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한다(최예나, 2016; 하상근, 20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평소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우리 지역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반상회나 주민간담회에 자주 참여한다', '나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서명운동, 항의집회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등이다(김대건·김동철, 2014).측정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이다.

셋째,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최문형·정문기,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나는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등이다(성희자·전보경, 2006). 측정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집합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으로 정의한다(김대건·김동철, 20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나는 우리 지역사회를 신뢰한다', '나는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나는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등이다. 측정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이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 등을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된 데이터는 2019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C 기초자치단체 8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별로 1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800명 중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225명에 대해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3개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인 전체 22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1명(49.3%), 여자 114명(50.7%)이며, 연령은 20~30대 38명(16.9%), 40대 34명(15.1%), 50대 60명(26.7%), 60대 이상 93명(41.3%)이다. 거주기간은 5년 이하 52명(23.1%), 6~10년 41명(18.2%), 11~15년 3명(10.2%), 16~20년 44명(19.6%), 21년 이상 65명(28.9%)이며, 학력은 중졸 이하 26명(11.6%), 고졸 88명(39.1%), 대졸 98명(43.6%), 대학원 이상 13명(5.8%)이다. 혼인상태는 기혼 193명(85.8%), 미혼 32명(14.2%)이며,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이하 77명(34.2%), 151~250만원 52명(23.1%), 251~350만원 46명(20.4%), 351~450만원 26명(11.6%), 451만원 이상 24명(10.7%)이다.

〈표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11	49.3	학력	중졸 이하	26	11.6
	여자	114	50.7		고졸	88	39.1
연령	20~30대	38	16.9		대졸	98	43.6
	40대	34	15.1		대학원 이상	13	5.8
	50대	60	26.7	혼인 상태	기혼	193	85.8
	60대 이상	93	41.3		미혼	32	14.2
거주 기간	5년 이하	52	23.1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77	34.2
	6~10년	41	18.2		151~250만원	52	23.1
	11~15년	23	10.2		251~350만원	46	20.4
	16~20년	44	19.6		351~450만원	26	11.6
	21년 이상	65	28.9		451만원 이상	24	10.7
				전체		225	100.0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v24.0과 Amos v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활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의 사전분석으로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요인들 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분석모형에 따라 주민자치회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사전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실증분석에 적용된 요인들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6] 분석결과 분석에 적용된 문항들의 표준화 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0.981, 주민참여 0.924, 공동체 의식 0.972, 사회적 자본 0.960으로 모두 0.7 이상이었으며, 분산추출지수의 경우 모두 0.5 이상으로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적합도는 χ^2=161.454(df=71, p=0.000), CMIN/DF=2.274, RMR=0.059, GFI=0.909, AGFI=0.857, NFI=0.863, NNFI=0.889, CFI=0.917, RMSEA=0.075로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6) 각 요인별로 구성문항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분		표준화 적재치	측정 오차	신뢰도	분산 추출 지수	모형적합도
주민 자치회 거버 넌스 역량	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회의 운영을 위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782	0.034	0.981	0.946	χ^2=161.454 df=71(p=0.000) CMIN/DF=2.274 RMR=0.059 GFI=0.909 AGFI=0.857 NFI=0.863 NNFI=0.893 CFI=0.917 RMSEA=0.075
	나는 주민자치회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812	0.044			
	나는 주민자치회 규약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832	0.033			
주민 참여	나는 평소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우리 지역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0.593	0.059	0.924	0.807	
	나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반상회나 주민간담회에 자주 참여한다.	0.559	0.115			
	나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서명운동, 항의집회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0.628	0.085			
공동체 의식	나는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653	0.044	0.972	0.897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0.660	0.057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0.722	0.073			
	우리 지역사회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0.635	0.031			
사회적 자본	나는 우리 지역사회를 신뢰한다.	0.717	0.050	0.960	0.857	
	나는 평소 주변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0.558	0.048			
	나는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583	0.078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0.587	0.075			

2) 상관관계 분석

분석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기대,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른 요인의 상관계수는 주민참여 0.167, 공동체 의식 0.332, 사회적 자본 0.327이며, 주민참여와 다른 요인의 상관계수는 공동체 의식 0.494, 사회적 자본 0.681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계수는 0.653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구분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1.000			
주민 참여	0.167*	1.000		
공동체 의식	0.332**	0.494**	1.000	
사회적 자본	0.327**	0.681**	0.653**	1.000

* p<0.05, ** p<0.01

2. 실증분석과 해석

1) 가설1, 가설2 및 가설3 검증과 해석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첫째, 가설1의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β=0.336,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의 검증결과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커질수록 사회적 자본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체로서 기능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신뢰와 연대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참여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는 참여자들의 협력, 호혜성 및 규범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촉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소진광, 2004; 이곤수·송건섭, 2007; 임종임·이신숙, 2015; 곽현근, 2015).

둘째, 가설2의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β=0.178, p=0.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2의 검증결과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커질수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화된 주민자치회의 거버넌스 역량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는 더욱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핵심 기제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동일하다(강재규, 2016; 김혜정, 2016; 가상준, 2018).

셋째, 가설3의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β=0.339,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3의 검증결과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늘어날수록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할 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소통과 공론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된 조직이라는 점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유사하다(서재호, 2013; 김혜정, 2016).

〈표 4〉 가설1, 가설2 및 가설3 검증

구분			β	t	p	통계량
가설	독립	종속				
가설1	(상수)	사회적 자본		5.987	0.000***	R^2=0.181 수정된 R^2=0.158 F=8.007(6)***
	성별		-0.048	-0.745	0.457	
	연령		0.216	3.162	0.002**	
	학력		0.140	2.047	0.042*	
	거주기간		0.117	1.774	0.077	
	월평균 소득		0.013	0.196	0.845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0.336	5.445	0.000***	
가설2	(상수)	주민 참여		3.473	0.001**	R^2=0.162 수정된 R^2=0.139 F=7.012(6)***
	성별		-0.035	-0.537	0.592	
	연령		0.291	4.212	0.000***	
	학력		0.246	3.554	0.000***	
	거주기간		0.145	2.176	0.031*	
	월평균 소득		-0.009	-0.141	0.888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0.178	2.848	0.005**	
가설3	(상수)	공동체 의식		6.888	0.000***	R^2=0.160 수정된 R^2=0.137 F=6.937(6)***
	성별		-0.092	-1.423	0.156	
	연령		0.184	2.667	0.008**	
	학력		0.135	1.945	0.053	
	거주기간		0.060	0.892	0.373	
	월평균 소득		-0.005	-0.080	0.936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0.339	5.431	0.000***	

* p<0.05, ** p<0.01, *** p<0.001

2) 가설4 및 가설6 검증과 해석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분석결과 주민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β=0.473, p=0.000***)과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β=0.420, p=0.000***)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4와 가설6은 채택되었다. 가설4와 가설6의 검증결과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관심과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는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는 참여자들이 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거버넌스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촉진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의식은 지역공동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신뢰와 연대감을 통해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김혜연, 2011; 노병찬·주덕, 2016)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심홍진 외, 2014; 곽현근, 2016; 최경애, 2016)와 일치한다

〈표 5〉 가설4 및 가설6 검증

구분			β	t	p	통계량
가설	독립	종속				
	(상수)	사회적 자본		3.521	0.001**	R^2=0.599 수정된 R^2=0.586 F=43.307(7)***
	성별		0.015	0.324	0.746	
	연령		0.007	0.141	0.888	
	학력		-0.036	-0.742	0.459	
	거주기간		0.012	0.263	0.793	
	월평균 소득		0.019	0.397	0.692	
가설4	주민참여		0.473	9.092	0.000***	
가설6	공동체 의식		0.420	8.458	0.000***	

** p<0.01, *** p<0.001

3) 가설5 검증과 해석

주민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주민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β=0.484,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가설5의 검증결과는 주민참여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대감, 소속감 및 충족감이 발현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동일하다(최예나, 2016; 가상준, 2018).

〈표 5〉 가설5 검증

구분			β	t	p	통계량
가설	독립	종속				
가설5	(상수)	공동체 의식		9.634	0.000***	R^2=0.251 수정된 R^2=0.230 F=12.160(6)***
	성별		-0.059	-0.966	0.335	
	연령		0.057	0.845	0.399	
	학력		0.007	0.103	0.918	
	거주기간		-0.037	-0.577	0.564	
	월평균 소득		-0.004	-0.060	0.952	
	주민참여		0.484	7.705	0.000***	

*** p<0.001

4) 가설 7-1과 7-2 검증과 해석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7-1과 가설7-2에 대한 검증 결과[7]는 다음 〈표 7〉과 같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가설7-1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가설7-2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7-1과 가설7-2의 검증결과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은 이들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과 의지라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며, 공동체 의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교류와 유대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Perkins et al., 1992; Conway & Hachen, 2005; 이인숙, 2015)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표 7〉 가설7-1, 7-2 검증

구분		베타	t	p	통계량
1단계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 → 주민참여	0.178	2.848	0.005**	R^2=0.162 수정된 R^2=0.139 F=7.012(6)***
2단계	주민자치 거버넌스 역량 → 사회적 자본	0.336	5.445	0.000***	R^2=0.181 수정된 R^2=0.158 F=8.007(6)***
3단계	주민자치 거버넌스 역량 → 사회적 자본	0.124	2.737	0.007**	R^2=0.612 수정된 R^2=0.598 F=42.667(8)***
	주민참여 → 사회적 자본	0.468	9.124	0.000***	
1단계	주민자치 거버넌스 역량 → 공동체 의식	0.339	5.431	0.000***	R^2=0.160 수정된 R^2=0.137 F=6.937(6)***
2단계	주민자치 거버넌스 역량 → 사회적 자본	0.336	5.445	0.000***	R^2=0.181 수정된 R^2=0.158 F=8.007(6)***
3단계	주민자치 거버넌스 역량 → 사회적 자본	0.124	2.737	0.007**	R^2=0.612 수정된 R^2=0.598 F=42.667(8)***
	공동체 의식 → 사회적 자본	0.379	7.389	0.000***	

** p<0.01, *** p<0.001

7)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 검정으로서 다중매개에 대한 Sobel 검정 결과 z=1.889, p=0.029*로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검증 결과 종합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1, 가설2 및 가설3 모두 채택되었다.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4와 가설6 모두 채택되었다. 주민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5는 채택되었다.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7-1과 가설7-2에 대한 검증결과 모두 부분매개를 보여 채택되었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종합

구분		검증결과
가설1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주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7-1	주민참여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7-2	공동체 의식은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Ⅴ. 결론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인과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거버넌스 역량,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2019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C 기초자치단체 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은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및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높아질수록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과 같은 다양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 연대, 호혜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이다. 둘째,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의 현안과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촉진시킨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될수록 사회적 자본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참여활동은 궁극적으로 주민들 간 강한 유대관계와 충족감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마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활성화는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역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을 형성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에 도움을 준다(김혜정, 2016).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자리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노병찬·주덕, 2016).

둘째, 마을 거버넌스 또는 근린 거버넌스로서 주민자치회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운영되지만 해당 자치단체 본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여전히 주민자치회의 역량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 의제에 대한 결정이 소수의 핵심 참여자 또는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원기관과 공무원, 시민사회조직, 전문가 등이 함께 협력하는 주민자치의 실천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전대욱, 2014).

셋째, 주민자치회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참여자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높아질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박광표·김동철·김대건, 2020). 참여의 다양성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이 마을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로 지역 내 자생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의 개방성은 주민자치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 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주민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적극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거버넌스 역

량에 대해 춘천시 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추가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관련 인식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면 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상준(2018).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한국과 국제정치』, 34(1): 51-81.

강재규(2016).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1): 103-142.

곽현근(2004).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8(6): 1-22.

곽현근(2012). “읍·면·동 근린자치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곽현근(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3-249.

김대건(2009). “참여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국정관리연구』, 4(1): 22-46.

김대건·김동철(2014).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성과 시민참여 의식 관계 분석”, 『지방정부연구』, 18(1): 243-265.

김동철·박광표·김대건(2020). “시민의 사회적 포용 가치 인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관계신뢰와 사회적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1): 1-31.

김상민(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181-209.

김상섭·백종만(2016). “이주민정책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역량: 인천광역시의 사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36.

김석준 외(2002).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김정희(2014).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지방정부연구』, 18(1): 267-290.

김태룡(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김필두·류영아(2014).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혜연(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김혜정(2016).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25.

김홍주·강인호(2020).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99-119

노병찬·주덕(2016).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41-259.

박광표·김동철·김대건(2020).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1(1): 73-95.

박영민(2014). “농촌지역 사회자본 형성과 정부정책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8(2): 267-292.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서문기·오주현(2010).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3: 111-138

서재호(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처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

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성희자·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1): 149-170.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심익섭(2001).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11(2): 51-79.
심홍진·이연경·김지현·김용찬(2014). "지역민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8(4): 484-506
안철현(2017).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7(4): 31-53.
우양호(2013).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방정부연구』, 17(1): 393-418.
유의정 외(2010).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NARS 정책보고서』, 제2호.
이곤수·송건섭(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이인숙(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이정석(2015).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지방정부연구』, 19(3): 411-435.
임종임·이신숙(2015).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300-313.
전대욱(2014). "풀뿌리주민자치와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월간 주민자치』, 32: 22-23.
정지훈(2016).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연구』, 16(1): 15-33.
조석주·박지영(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선미(2003). "공론장의 정치사회적 함의: 지방정치 및 시민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221-240.
최경애(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 『공공사회연구』, 6(4): 76-120
최문형·정문기(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최예나(2016). "지방정부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129-152.
하상근(2020).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광화문 촛불 참여 전후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89-124.
하혜영(2020).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48호.
한승준(2008). "다문화사회 이행단계별 거버넌스 전략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3(2): 99-122.
Baker, W. E.(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89-625.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Harvard university press.
Conway, B. P. & Hachen, D. S. (2005). "Attachments, Crievances, Resources, and Efficacy: The Determinants of Tenant Association Participation Among Public ousing Tenan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1): 25-52.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Davies, W. K. D., & Herbert, D. T.(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social ge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Fleras, A.(2009).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Govern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Perkins, D. D., Meeks, J. W., & Taylor, R. B.(1992).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treet Blocks and Resident Perceptions of Crime and Disorder: Implications for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21-34.

Pill, M.(2007). "What rationales are driving neighbourhood governance initiatives in the US and UK" Paper presented at the "Vital City" European Urban Research Association, University of Glasgow.

Putnam. R.(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Putnam, R. D.(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4.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ulture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Rich, R. C., Edelstein, M., Hallman, W. K., & Wandersman, A.(1995). "Citizen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The Local Environment Hazar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657-676.

Rubin, H. J. & Rubin, I. S.(2001). Community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Allyn and Bacon.

Stoker, G.(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17-28.

Tsuneyoshi, R, Okano, K. H. & Boocock, S.(2011). Minorities and Multiculturalism in Japanese Education: An Interac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접수일 : 2022. 10. 25
1차 심사일 : 2022. 12. 06
확정일 : 2022. 12. 23

김 동 철

2012년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조직행태, 인적자원관리 및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경영조직론」(2019) 등 단행본과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22),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 및 변화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2021), “시민의 사회적 포용 가치 인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2020)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 대 건

2003년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부 자체 평가위원, 정부혁신전략추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책임운영기관 평가단장, 한국조직학회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교수로 재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조직관리, 조직설계론, 조직행태론, 공동체 갈등 해결 및 협력론 등이다. 「행정과 조직행태」(2020),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2015) 등 단행본과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적 특성과 조직운영형태에 관한 연구”(2021), “시민참여와 사회적자본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2021),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2020), “시민의 사회적 포용 가치 인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2020)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